

바캉스 + 새

어, 저 새소리는?

민속자연사박물관 · 신산공원 · 삼성혈

잘 베려보곡 생이소리도 잘 듣곡

Bird Watching & Hearing

* 잘 살펴보고
새소리도 잘 들으세요



'생이'는 '새'를 의미하는 제주어입니다.

새소리는 종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서로 간에 부르는 신호를 보내고,
경계하는 소리도 제각각입니다.

특히 짝짓기 시기에는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노랫소리가 곱고 우렁칩니다.



팔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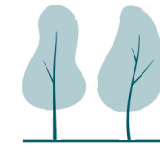


긴꼬리딱새

पी꼬리

박캉스새+ 란?

(Museum+Vacance+Birds)



『박캉스』는 박물관과 바캉스를 합성한 용어로
‘박물관에서 피서를 즐긴다’는 의미이며, 『새+』는
‘새와 함께 더 알찬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다. 즉
『박캉스새+』는 여름 방학을 맞은 초등학교를 대
상으로 박물관 정원과 주변의 신산 공원에서 전문
가와 함께 새를 관찰하고, 이어서 박물관 전시실과
수장고에서 조류 표본을 만나보는 체험 프로그램
이다.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에 문을 열었죠. 박물관 정원을 비롯하여 주변 산지천과 신산공
원에서도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한 박물관의 전시실과 수장고에서도 희귀한 새들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는 어떤 동물 일까요?



새의 조상은 파충류로부터 진화한 생물로 보고 있으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시조새 화석입니다. 아르케옵테릭스(Archaeopteryx, 고대의 날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조새는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쥐라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새는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다니는 척추동물로(날짐승), 박쥐나 곤충과는 전혀 다릅니다. 앞다리는 날개로 변형되어 비행 생활에 적응되었고, 입은 부리로 되어 손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며, 온몸이 깃털로 덮인 온혈동물입니다. 새는 지구상에 분포하는 다른 어떠한 동물보다도 다양한 서식지를 갖고 있습니다. 극지방을 비롯하여 히말라야 산맥, 사막, 밀림, 하늘, 바다, 강, 초원, 도심지 등 지구 곳곳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삼성혈 주변에는
어떤 새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도 따라
H 보러 가요



신산공원

신산공원은 제주 시민과 야생조류의 쉼터이면서 왕벚나무 명소로 88서울올림픽 성화 기념물이 세워져 있다.



삼성혈

삼성혈은 삼신인(三神人 -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이 탄생한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이다.

나는 누구일까?



새들은 살아가는 장소와 계절에 따라 텃새, 여름철새, 겨울철새, 나그네새, 길잃은새 등으로 구분합니다.

신산공원과 같은 숲에서도 새를 만날 수 있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직박구리, 섬휘파람새, 동박새, 박새,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큰부리까마귀, 멧비둘기, 제비, 밀화부리, 유리딱새 그리고 꽃자왈에 사는 큰오색딱따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 흰눈썹황금새, 황금새, 큰유리새 등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새를 보려거든 시인의 눈으로 보고, 새소리를 들으려면 천사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시인이며 천사입니다.

※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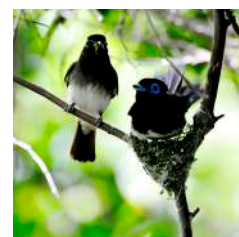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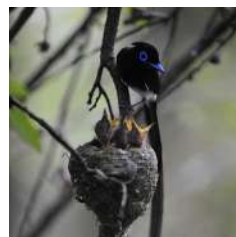
🔊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긴꼬리딱새 *Terpsiphone atrocaudata*

Black Paradise Flycatcher / サンコウチョウ

수컷은 검고 긴 꼬리를 달고서 날아다니면서 곤충류를 잡아먹는 모습이 환상적이다. 보통 수컷의 꼬리는 20~30cm이며, 암컷은 수컷의 3분의 1정도.

멸종위기 II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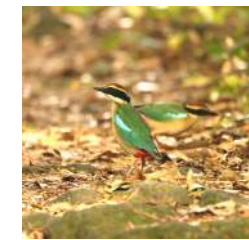


팔색조 *Pitta nympha*

Fairy Pitta / ヤイロチョウ 仙八色鶇

여름철새. 여덟 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 '미의 극치'를 상징하기도 하며, '무지개 색깔의 선녀' 라고도 부른다. 나뭇가지를 모아 둥지를 튼다.

천연기념물



흰눈썹황금새 *Ficedula zanthopygia*

Yellow-rumped Flycatcher

マミジロキビタキ 白眉(姬)鶇

여름철새. 수컷의 눈썹선이 흰색이며, 배가 노란색을 띤다. 큰오색딱따구리의 옛 둥지, 인공 새둥지 등에서 번식을 한다. 한라산 전역에서 관찰된다.

동박새 *Zosterops japonicus*

Japanese White-eye / 메ジロ 暗緑绣眼鸟

털새. 몸 색깔이 초록빛이고 하얀 눈 테가 돋보임.
도내 어디를 가든 흔히 볼 수 있으며 소수의 무리
를 지어 나뭇가지를 옮겨 다닌다. 겨울에 동백나무
의 꽃 꿀을 빨아먹는다.



큰유리새 *Cyanoptila cyanomelana*

Blue-and-White Flycatcher

オオルリ 白腹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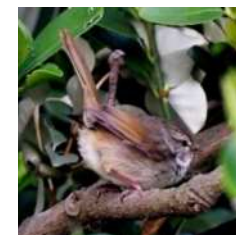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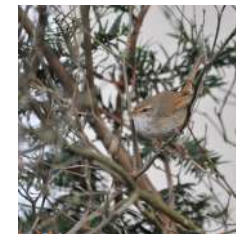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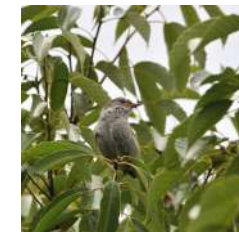
여름철새. 수컷은 머리, 등, 날개, 꼬리에 이르기까
지 청색을 띠며, 목과 가슴은 검은색, 배는 흰색이
다. 계곡의 바위 틈새에 이끼로 둥지를 만든다.



박새 *Parus minor*

Great Tit / シジユウカラ 大山雀

털새. 머리, 앞목, 가슴은 검은색이고 날개는 회색
빛이며 등은 약간 녹색 빛을 띤다. 가슴과 배 가운
데가 까만색이다. 나무나 전신주 구멍 또는 인공새
집 등에서 번식하며, 해안저지대에서부터 한라산
숲 속까지 분포한다.



섬휘파람새 *Horornis diphone*

Japanese Bush Warbler / 우그이스 树莺

털새. 제주어로 '호비작생이'라 부른다.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고립되어 적응하면서 울음소리가
고유한 사투리로 진화되고, 형태적 특징이나 습성
이 달라졌다.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Brown-eared Bulbul / ヒヨドリ 栗耳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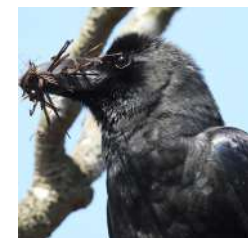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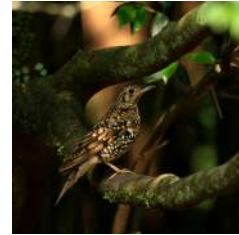
털새. 제주어로 지역에 따라 ‘비치’, ‘비쭈’ 라 하며, 특히 멀구슬나무 열매를 좋아해서 ‘먹구실생이’ 라 한다. 몸 빛깔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이며 눈 밑의 뺨 부분은 밤색이다.



호랑지빠귀 *Zoothera aurea*

White's Thrush /トラツグミ 虎斑地鶇

털새. 깃털색이 호랑무늬여서 이름이 붙여졌다. 저녁 무렵에 ‘히이이’하고 금속 소리에 가까운 울음 소리를 내어 일부 지역에서는 ‘귀신새’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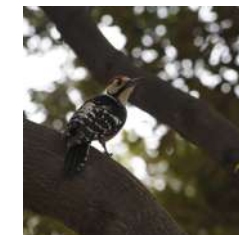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Large-billed Crow / ハシブトガラス

大嘴乌鸦

털새. 까마귀보다는 몸집과 부리가 크고, 윗부리가 볼록하다. 한라산이나 중산간 지역 또는 꽃자왈의 키 큰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튼다.



큰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leuc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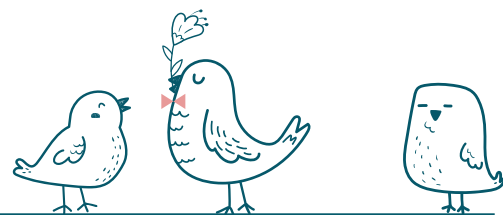
White-backed Woodpecker

オオアカゲラ 白背啄木鸟

털새. 제주어로 ‘남도르기생이’라 부른다. 죽어있는 나무에 구멍을 파서 알을 낳으며, 번식기 때에는 부리로 나무를 두드리는 습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징새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새들은 종마다 다양한 깃털색을 지니고 있으며, 평생 깃털갈이를 통해 새로운 깃털로 갈아입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암수와 성장과정에 따라 다르며, 번식시기에는 깃털색이 변하고, 부리와 다리 색깔도 달라집니다. 또한 천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보호색을 띠며, 천적에 대항하려고 방어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매는 암수의 깃털색이 같으며, 몸집은 수컷보다 암컷이 크다.

황로는 여름깃과 겨울깃이 다르며, 번식기에는 머리와 목덜미가 황색으로 변한다.

원앙은 암수의 깃털색이 다르며, 수컷이 암컷보다 화려하다.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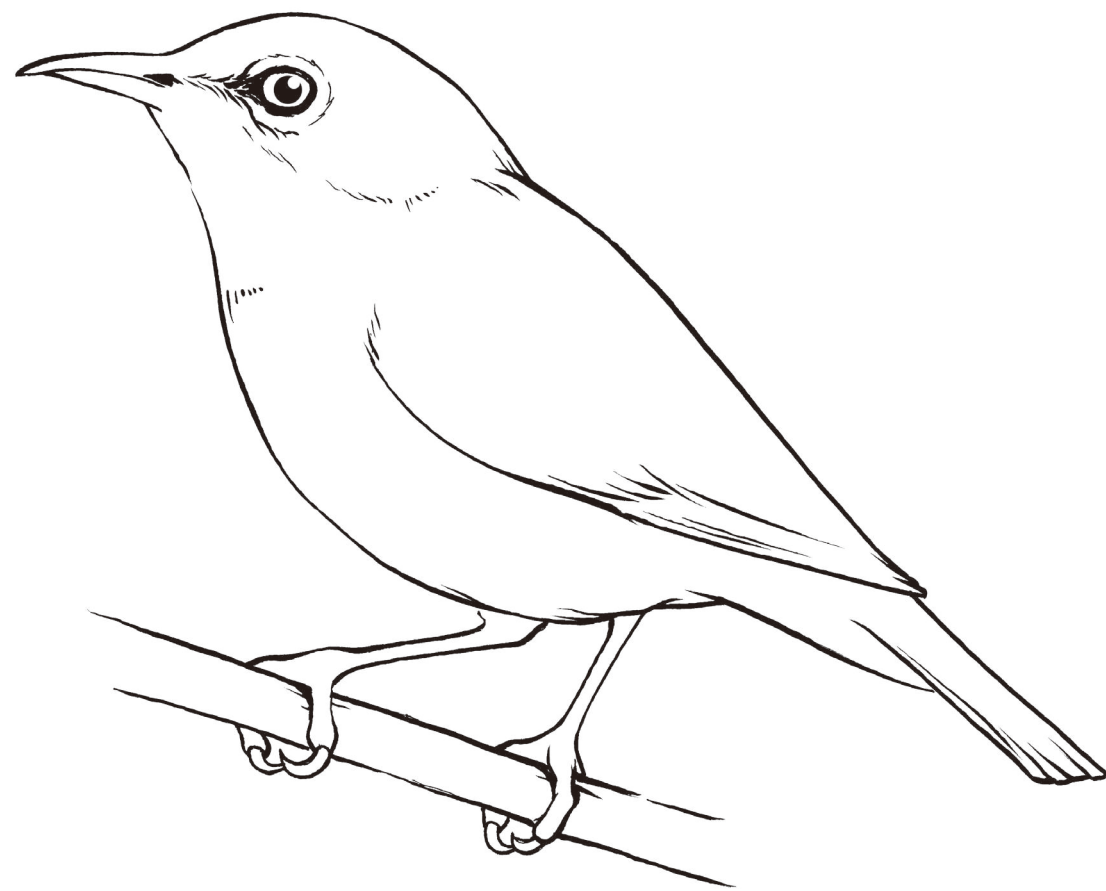
색칠해보세요!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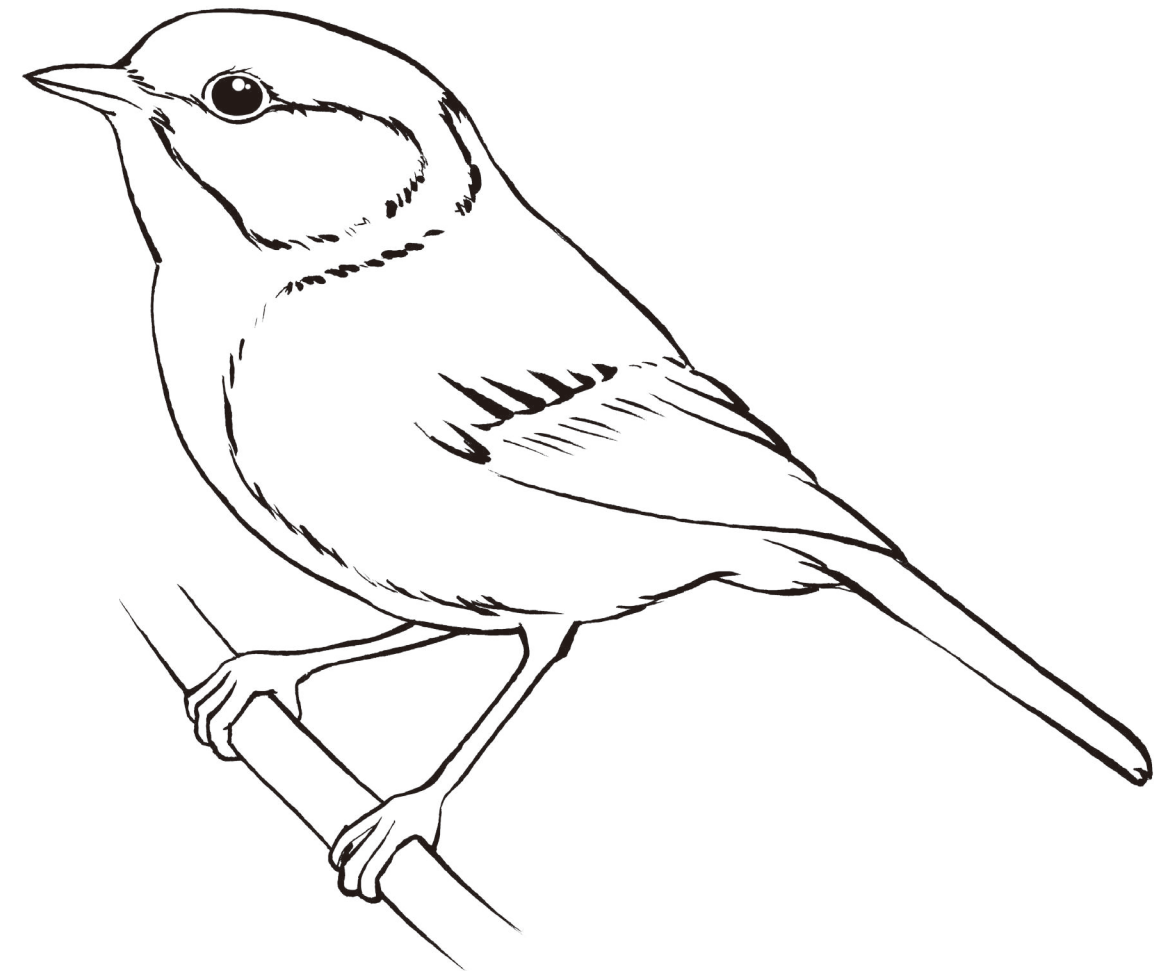
긴꼬리딱새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동박새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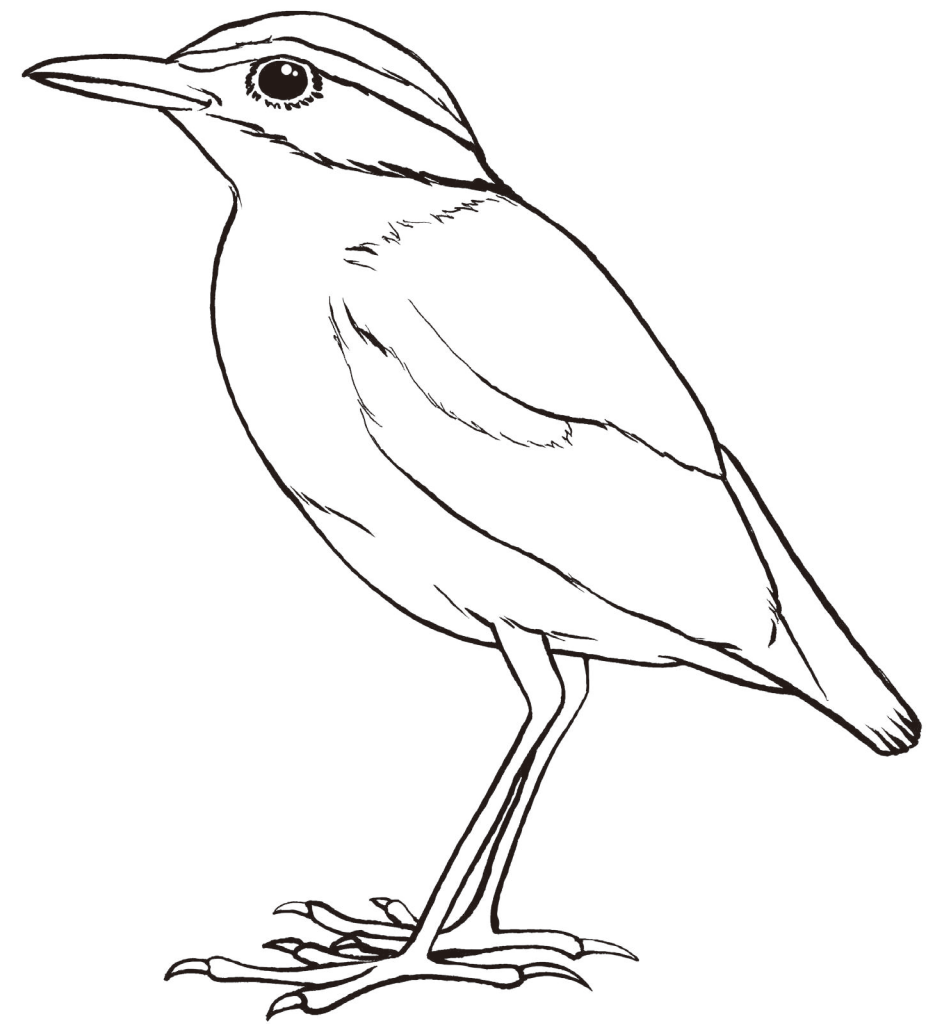
박새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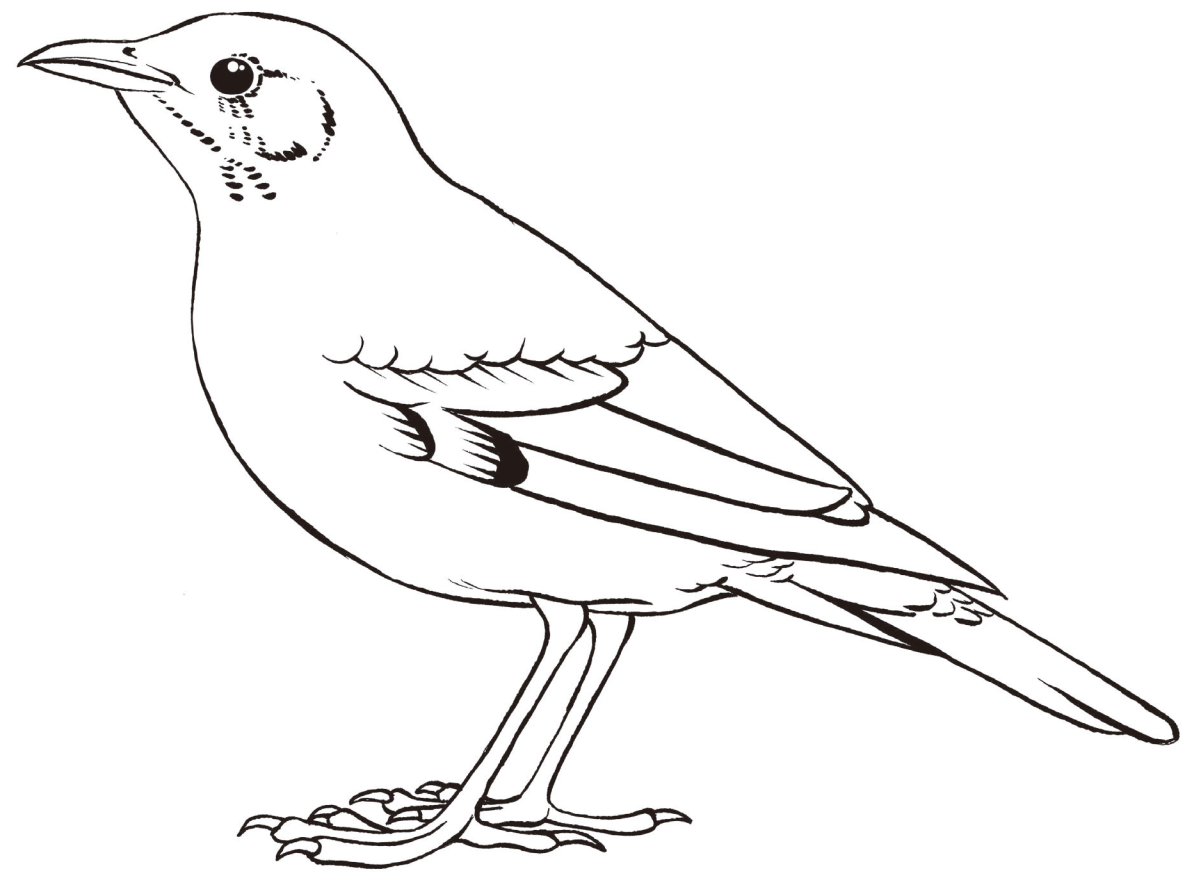
큰오색딱따구리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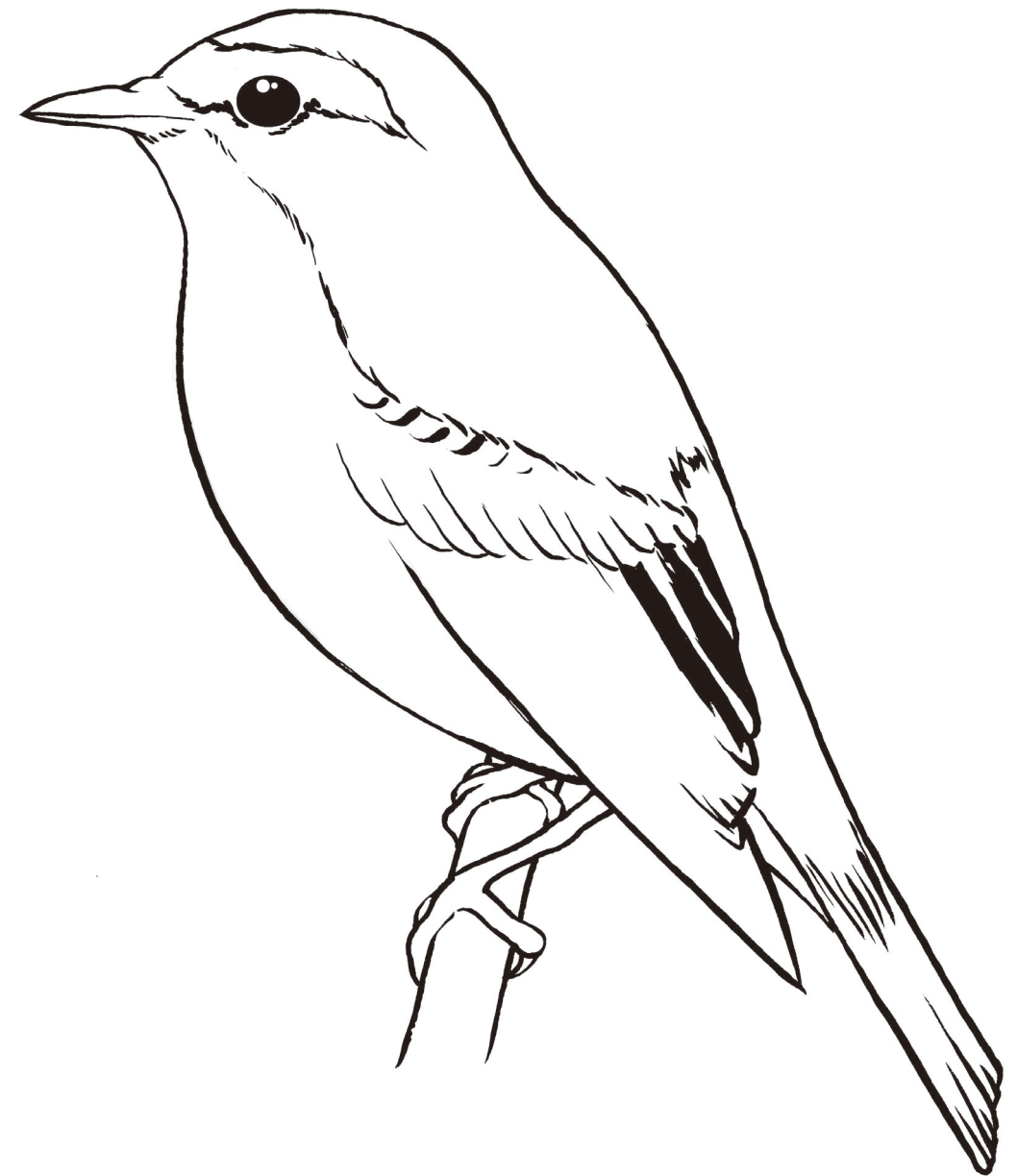
팔색조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호랑지빠귀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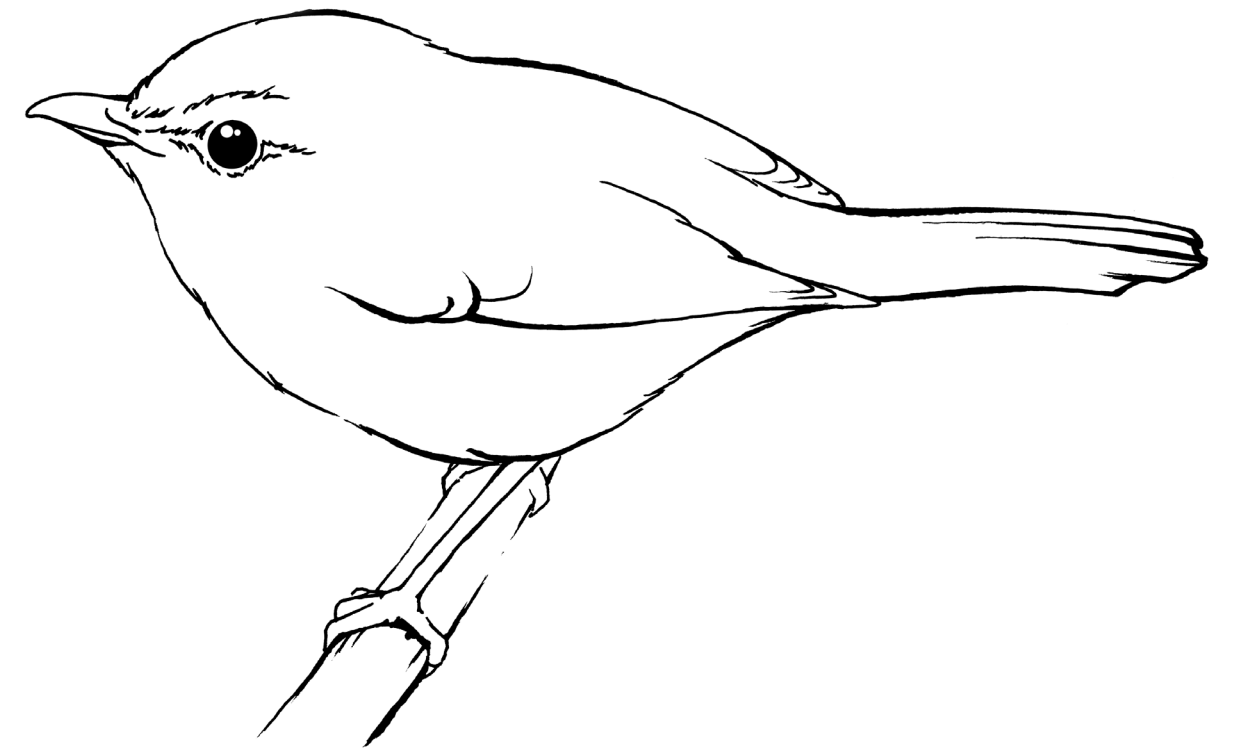
흰눈썹황금새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큰유리새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섬휘파람새

OX 퀴즈로 풀어보는 새 세상 이야기

① 팔색조는 지렁이를 잡아먹으며, 꽃자왈에서 번식하는 텃새입니다. ()

② 새(Bird)는 제주어로 '생이'라 부릅니다. ()

③ 멧비둘기는 산에 산다고 해서 '산비둘기'이라고도 합니다. ()

④ 직박구리는 멀구슬나무 열매만을 즐겨 먹습니다. ()

⑤ 큰오색딱따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상징새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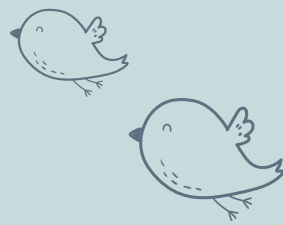
⑥ 박새는 나무 구멍에만 알을 낳습니다. ()

⑦ 동박새는 동백나무 꽃 꿀을 좋아하는 텃새입니다. ()

⑧ 긴꼬리딱새는 꼬리가 긴 것이 암컷입니다. ()

⑨ 황로는 암수 깃털색이 다르지만, 여름깃과 겨울깃은 같습니다. ()

⑩ 독수리의 다리 뼈 속은 비어 있습니다. ()



여러분도 새도 멀리서 보면, 아주 작은 점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어, 서로 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이 끊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영기간 | 2022년 7월 26일 **화** ~ 7월 30일 **토**
 · 오전, 오후 (1일 2회)
 · 연 10회 (초등학생)

탐방코스 | · 박물관 주변(야외), 전시실, 수장고

신청기간 | 2022년 7월 1일 **금** 부터
 · 홈페이지 선착순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064-710-7704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발행인 노정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일도2동) | 064-710-7704

홈페이지 www.jeju.go.kr/museum/index.htm

기획 박용범 김완병

학예지원 김범수 부슬기든 백지현 황이새 이재호

사진 김영호 김기삼 김완병 오승목 조영균

그림 김병훈 **영상** 오승목

교재제작 이공삼팩토리

발행일 2022. 6. 20

OX 퀴즈 정답
 ① X ② O ③ O ④ X ⑤ O ⑥ X ⑦ O ⑧ X ⑨ X ⑩ O

본 책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